

중국, 효성 PET칩 반덤핑 조사 재개

다우존스, 중국 상무부 예비검토 1년간 진행 ... 효성은 2월 재심 청구

중국 정부가 효성이 공급하는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Chip에 대해 반덤핑 혐의로 조사를 개시했다.

4월26일 다우존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효성이 수출하는 PET Chip에 예비검토가 집중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우존스는 반덤핑 조사가 12개월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대해 효성은 2003년 2월 관세율이 확정된 반덤핑 조사에 대해 2004년 2월 중국 상무부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상무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조사가 실시되게 됐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4/04/28>